朝鮮日報 夕刊 二十二日(日)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音樂콩쿨을마치고

一

本社主催와 朝鮮音樂家協會의 後援으로서 開催된 音樂競演大會는 昨夜로서 그 最終의 決勝演奏를 마치엇다. 豫選으로부터 再選까지의 難關을 通過하야 最終選에 뽑힌 男女十四人의 젊은 樂人들의 熱과 精誠에서 용소슴치는 樂音이 千餘 聽衆의 同一한 感激과 呼吸속에서 反響되엇슴은 이 大會의 意義가 우리들의 天才를 發見하려는 集團的 共同意義에서 出發된 것이기 때문이엇음은 말할것도 업는것이다. 本社가 今春 이 計畫을 發表하자 全朝鮮坊坊谷谷에서 함께 기대리든것과 갓흔 共鳴者를 엇게 되것은, 豫選에 參加한 百有餘의 樂人의 地方別을 보아서도 넉히 알수잇는일이엿다 時代文化에 併進하려는 우리들의 歷史的努力이, 모든方面에 普及되어야할 必要로서 볼때, 今回의 本社의 音樂 콩쿨은, 일즉이 試驗하지못한 文化部門의 處女地를 開拓한 劃時期的意圖의 表現이라할수도 잇다고 생각하는바이다.

二

最近 朝鮮社會에는 窮路를 打開하야 여러가지方面으로 躍進하려는 意氣가 昂揚되고 잇는 事實을 無視할수는 업슬것이다 그中에도 產業的으로 뒤떠러진 民族的弱點을 닦은文化財의 遺產의 繼承및 이것의 發揚으로서 補塡하려는것과 가튼一般的傾向은 朝鮮體育界가 이미世界的레벨에 到達하고잇는點 其他를想到하면 그一端을 認知할것이다 藝術의部門에 잇서서 또한 朝鮮이 世界的 레벨에 達하려고 努力하여야할것은 이또한自然的인 要求가아니랴? 더욱히最近朝鮮의音樂界는 不定한環境과條件에不拘하고 만흔 天才들이輩出하고잇는 現狀에서 볼때에社會가 이들의 意氣를 좀더鼓舞하고 理解잇는 聲援을 보내는것은 이方面의 開拓에 크다란精神的寄與가될것으로 생각하는바이다. 天才를 가젓스나 發揮할緣由가업는이들에게 拔身의機會를지어주는 音樂콩쿨은 實로이方面의研究者들에게 커다란 刺戟이되것을 스스로믿고 疑心치 안는바이다

三

音樂的 情操는 人間의 藝術的表現意識中의 가장 基本的인것인同時에 그感情의 組織傳導에 잇서서의 時間的一致性, 集團性은 모든藝術部門에 잇서서 가장 代表的인것이다. 發生的으로볼때 律動과함께 發音의 調和로써 오는快美感은 詩歌의 表現에 先行한것이다. 그럼으로달은藝術이업는 엇더한 民族에잇서서도 音樂的技巧가 업는 例는업다. 現代原始民族에 잇서서도 各各그民族的特性을 表現한 노래와 樂器를 가지지안흔 民族은업다. 文化가 高級하면 高級할사록 音樂的表現의 技巧는 發達된다. 東洋에잇서서 朝鮮人은 藝術의다른 部門에잇서보다도 音樂에잇서서 偉大한 傳統을 繼承하고잇는 民族이다. 朝鮮은現在모든 古代音樂的 技巧를 綜合하얏다고 할수잇는 宮庭樂의 現在의 唯一한 保有者이다. 이

和協試案拒絕로 各國大使도斷念

三國外交折衝에 一縷의希望

國際情勢極度로惡化

【電通羅馬二十一日發】伊太利政府는 二十四日 閣議를 開催하겟다는 旨를 公表하엿스나 主要國의 大使館側에서는 伊太利政府가 和協案을 拒絕키로 決定한以上 事態는 이미 破局에直面하야 伊에兩國의 面目問題가 기피뿌리를 내리고잇는今日 별서 和協의 希望은 全然 업서젓다고 말하고잇다

【羅馬二十一日發聯合】伊太利政府가 和協試案을 拒否하기로決定한結果 情勢極度로 惡化하야 지금外交界는 深刻한 憂慮에잠겨잇는데 特히 못솔리니首相이二十日 佛國代表우·샹프랑氏와 會見하고 스빅치外務次官은 英國大使에릭·드라몬드氏와 日本大使杉村博士等과의 會見에 徹하야 形勢好轉을 傳하고잇던 直後이니만치 國務閣議의 決定은 晴天의 霹靂으로 全歐洲를 震駭케 하엿다 勿論 못솔리니首相으로서도 數次의 外交折衝으로 和協試案拒否의結果 誘致될事態에 對하야 充分 豫測하고잇다고 解釋되다 따라서 今回의 裁斷으로 和協工作의 門戶가 이에 閉鎖되게되엇다고 斷定하지아놀수업스나 그러나 英佛兩國은 伊太利와의 直接交涉에 依한 紛爭의 平和的處理에 一縷의 希望을 두고 左의 意向을 漏洩하고잇다

一、伊太利政府 今回의 決定은 五人委員會의 和協工作이 드듸어 終熄을 告하고 伊에兩國紛爭을 平和的으로 處理할門戶는 全혀 閉鎖되게되엇다

一、따라서 今後 英佛伊三國政府間의 直接交涉으로 解決策을 講할 希望이 全然 업는바는 아니다 콤뮤니케의 語調가 比較的妥協的인것은 特히 注目할만하다

판델라리아島에 伊政府戒嚴令發布

【羅馬二十一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二十一日 판델라리아島에 戒嚴令을 施行하엿다고 發表하엿다 판델라리아島는 씨실리島와 佛領튜니스아와의 中間에 잇서 伊太利政府에서는 同島에 軍備를 增强하야 一旦 開戰의 際는 地中海를 縱斷하야 英國海軍力을 東西로 二分할 作戰이라고 보인다

佛國國務會議 制裁範圍를討議

對英協調限度도協議

【랑비에二十一日發聯合】佛國政府는 二十一日午前 라발首相의 歸還을 마저서 랑비에의 大統領夏期官邸에서 國務會議를 開하고 루브랑大統領司會下에 一般國際情勢를 檢討하엿다 席上에서 라발首相은 聯盟理事會의 伊에兩國紛爭審議에 關한 經過를 報告하고 이어서

一、伊太利政府에 對하야 聯盟理事會가 制裁規定을 適用할 境遇의 方策

一、英國政府와의 協調提携限度

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고 審議二時間餘인 午後一時에 散會하엿다

【랑비에二十一日發聯合】佛國國務會議散會에 當하야 內相조지、따가놋氏는 國務會議의 經過에 對하야 左의 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佛國政府는 二十一日 午前十時半부터 루브랑大統領司會下에 國務會議를 開催하고 一般國際情勢에 對하야 檢討를加하고 特히쥬네브의各國代表間의 折衝에 對하야 라발首相의 報告를 接受하고 佛國政府의 方策에 對하야 協議를 遂하엿다

伊太利拒否로 聯盟驚愕

【電通쥬네브二十一日發】聯盟側에서는 伊太利가 二十一日의 閣議에서 和協案을 端的으로 拒絕치안코 代案을 提示하야 外交交涉의 餘地를 남기든지 그러치안흐면 諾否의 決定을 遷延하야 急激한 破局에 이르는 것을 避할수잇스리라고 豫想하고잇던바 생각과는 딴판으로 和協試案을 斷然 拒否하기로 決定하엿다는 報道에 接하야 자못 失望하고잇다 事態는 이에 이르러서는 規約第十五條第四項에 基한 勸告案作成에 나갈수밧게 업시되엇는데 伊太利가 이것을 拒絕할것은 明白하므로 드듸어 制裁問題가 論議케될것이라고 보이어 쥬네브의 空氣는 依然 惡化하게되엇다

五國委員會開催 伊의回答을報告

다시伊의代案을檢討

【電通쥬네브二十一日發】聯盟理事會議長마다리아가氏에게 알로이지 伊太利代表로부터 二十一日午後四時二十分 和協試案에 對한 伊太利의 回答이왓스므로 議長의 召集에 依하야 即時六時三十分 開會하고 議長은 爲先 如左히 報告하엿다

一、伊太利代表는 五國委員會의 和協試案이 伊太利의 權益을 公式으로 承認할 最少限度의 基礎만이라도 許與하는것이아니므로 受諾不可能하다고 思惟한바게업다는 閣議 콤뮤니케를 爲先 五國委員會에 傳達하기를 求하엿다

一、그러나 伊太利代表는 和協案 受諾不可能이라고하더라도 그대로 和協作業을 中止하지안코 그不滿點을 明白히하야 이로써 聯盟의 再考를 求할 餘地가 잇다는것을 認定하엿다

一、如上의 方針下에 못솔리니 伊首相은 一新代案을 作成하야 이것을 伊太利代表 알로이지氏로 하여금 提出케하기로 되엇다

이리하야 委員會는 緊張裡에 善後策의 協議를 繼續하엿는데 結局 伊太利代案을 一夜檢討한다음 다시 對策再建을 할바게업다고하고 右代案은 日曜中에 全部 到着할터이므로 五國委員會는 月曜(二十三日)午前十時 次回의會合을 開할것을 議決하고 午後七時廿五分 散會하엿다 그러나 右代案의 內容에 對해서는 委員會의 見解는 자못悲觀的이오 單純한表面的拒絕이라는 말을 避하기爲한 一種의 外交辭令의手段이 아닌가고 豫想하고 議長도 伊太利代表部의 語調에서 이미 이것을 看取한모양으로 伊太利의 軟化이니 好望이니 新發展新展開를 期待하는것은 거의 絕無이다

和協試案拒絕에 英緊急閣議召集

【倫敦二十一日發聯合】伊太利政府가 五人委員會의 和協試案을 拒否하기로 決定하엿다는 報道에 接하자 볼드윈首相은 即時 全員閣議를 召集하기로 決定하고 閣僚二十二名에 對하야 招請을 發하얏다 閣議는 二十四日 다우닝街十番地의 首相官邸에서 開會하고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制裁規定을 發動할 境遇의 具體案을 討議할것으로 보이는데 時局重大化와함께 皇帝조지五世陛下께서는 暑中休暇를 短縮하야 발모랄離宮으로부터 벅킹검宮殿에 御歸還하시엇다 八月二十二日全員閣議以來 各地에 散在한 閣僚도 週末에 續續 歸還中인데 볼드윈首相도 時局의 重大性에 鑑하야 十月四日까지 다우닝街의 官邸에 籠城하야 情勢의 推移를 監視할터이다

『和協試案拒絕은 絕對的은아니다』

알로이지代表確言

【쥬네브二十一日發聯合】伊太利代表알로이지男은 二十一日午後 五人委員會議長데·마다리아가氏를 訪問하고 和協試案에 對한 本國政府의 回答을 手交하고 和協試案에 對한 伊太利政府의 方針을 宣明하얏다 右會見席上에서 알로이지男은 特히 如左히 確言하엿다

伊太利政府는 二十一日의 國務會議의 結果 五人委員會의 諸提案을 受諾할수업다는 旨의 콤뮤니케를 發表하엿스나 右 콤뮤니케는 반드시 五人委員會의 提案을 絕對的으로 拒否하는것이 아니라고 解釋할것이다

以上 알로이지代表의 確言에 對하야 쥬네브側에서는 如左히 樂觀的觀測이 擡頭하게되엿다

一、伊太利政府今回의 公式콤뮤니케로 五人委員會의 存在를 確認하고 聯盟의 仲裁를 公式으로 承認하엿다

一、伊太利政府는 五人委員會가 別個의 修正案을 提出할 境遇에 充分 考慮할 用意가 잇다고 보인다

伊軍續續出兵 廿一日다시五千名

【電通나폴리廿一日發】和協이냐 戰爭이냐의 重大岐路에 선 伊太利政府는 東阿에 對한 出兵을 依然 緩和치안코 二十一日 프라산師團이라고 稱하는 師團正規兵五千名은 로스카나、브란제의 兩汽船에 分乘하고 群衆의 歡呼裡에 東阿로 向하엿다 그리고 포스오리、에르나리의 兩汽船은 約一千百名의 特技를 가진 勞働者와 多數의 軍需品과 軍馬를 積載하고 一兩日中에 出發하기로되엇다

에國經濟利權 廣汎한取引契約

米財界人이發表

【電通倫敦廿一日發】經育으로부터 當地에 來往한 米國財界人 서록氏는 廿一日 新聞記者團에게 左의 發表를 하엿다

나는 昨日及 今日의 兩日間 에디오피아의 駐英公使마리에氏와 折衝한結果 에디오피아 國內의 石油、金、銀 其他의 鑛產物全部의 開發權에 關하야 特惠取引을 하기로되엇다 必要한 契約書類는 모다 調印하고 其他 必要한 手續도 完了하야 契約當事者는 이 모다 滿足하고잇서서 契約은 萬事가 如意 進展中이다

에디오피아女軍 猛烈한訓練開始

【아디스아베바廿一日發聯合】開戰切迫과함께 首都아디스아베바는 全혀 戰時狀態를 呈하고잇다 二十一日 一萬五千의 應募兵은 各地로부터 首都아디스아베바에 到着하야 先着의 三萬兵도 加하야 練兵場에서 猛訓練을 開始하엿다 에디오피아가 아니면 볼수업는 光景은 男子에 뒤떠러지지안는 婦女子의 活動으로 우으로는 皇族將領夫人子女로부터 알로는 一兵卒의 妻子女에 至하기까지 男子와 正規兵과 어깨를 가티하야 各方面에 協力하야 活動하고잇다 猛將하타·미카엘將軍의 夫人과 가튼이는 아마조女子義勇軍을 組織하야 親히 機關銃部隊의 先頭에 서게되엇다 第二의 國民少年團一千二百은 首都警備에 備코저 萬一의 際의 偵察訓練을 밧고잇서서 全市를 擧하야 森嚴한 光景을 呈하고잇다

世界通史

和協試案提示

伊에紛爭을 中心으로 주네브에서는 聯盟對伊太利의 外交戰이 執拗히 繼續되고잇는反面에 地中海洋上에서는 英伊兩國艦隊의 攻防整備戰이 世界의耳目을 끌고잇는 中에서 마침내 聯盟理事會五國委員會는 十七日에 이르러 和協試案을 作成하야 伊에兩國에 提示하엿다 同案의 內容은 에디오피아에 잇서 어느程度까지 伊太利의 政治的 經濟的 擴張을 承認하는同時에 다나湖과 오가덴兩州를 伊太利에 割與하고 그代身 英佛兩國은 自國領土의一部를 에國에割與한다는것이다

伊太利閣議開催

聯盟理事會 五人委員會의 和協試案을 受諾하야 平和의길로 나아갈것이냐? 自國主張대로 邁進할것이냐?의 두態度中 하나를 取할 伊太利의 重大閣議는 二十一日에 開催되엿다 一般이 豫想하든바와 가티 右閣議는 五人委員會의 和協試案을 拒否키로決定하야 事件은 去益 擴大의 局面에 直面하게되엿다 그러나 聯盟의 制裁規定適用까지는 아직도 最後案提示와 勸告案提示의 두 階段이 남어잇슴으로 今後의 歸趨如何는 오직 聯盟理事會와 伊太利의 態度에 依存되여잇다

유고國軍動員

伊太利는 二十萬의 國軍을 東北阿洲植民地로 派遣하고도 오히려 不足한感이 잇는지 아직도 繼續하야 多數의 軍備를 東阿로 輸送하야 에디오피아를 占領하려하는 姿勢를 取하고잇다 一方 英國도 이에 對抗하야 海軍의 精銳를 地中海로 集結하고 잇든이때 유고슬라비아도 國軍二十萬을 動員하기로 決定하엿다 한다 그러고 希臘政府는 英國에 對하야 英海軍의 希臘上陸適港을 許與하엿다는바 伊에紛爭問題는 바야흐로 國際間의 重大問題로 轉化될 可能性을 多分으로 孕胎하게되엿다

比總統에케손氏

比島獨立政府 實現後 最初의 大統領選擧는 지난十七日에 擧行되엿다 候補者에는 國民民主黨及民主獨立黨의 共同候補者인 케손氏 革命教會派의 아기날드氏 獨立카돌릭派의 아그리바이氏의 三氏가 올나섯는데 投票의 結果 케손氏가 壓倒的 多數로 當選되엿스며 副大統領에는 오스메니아氏가 當選되엿다 上院議長 케손氏는 比島獨立案成立에 功勞者로 마닐라와 와싱톤을 中心으로한 타가로族의 五十萬人代表인만큼 다음政界의巨人이다

美濃部氏不起訴

美濃部博士의 憲法學說에關한 告發事件은 以來日本政界에 重大問題가 되여오드니 마츰내 博士의 貴族院議員辭職으로 檢察當局은 十八日에 同氏를 起訴猶豫로 決定하엿다 그러나 十八日에 發表한 同博士의 聲明이 지난議會에서 再次 問題되여 政府當局이 重大難局에 陷入할것을 諒察하고 美濃部氏는 드듸여 右聲明을 取消하엿스나 陸軍側은『聲明取消는 兒戲』라고 非常히 憤慨하고 잇는바 其實에는 決코 容易하지 안흔 事態를 釀成하고잇다

機關說問題로 政府危機에直面

美濃部博士의處置에對하야 軍部態度至極强硬

【電通東京電話】美濃部博士問題는 同博士의 自發的 聲明取消로 一段落을 告한것가트나 陸海兩軍部는 모다 美濃部博士의 處置에 對해서는 最初부터 不少한 不滿을 가지고 잇스므로 來二十五日午後一時半부터 開會할 閣議에서는 川島、大角陸海兩相이 小原法相에게 對하야 同問題에 對하야 다시 質問을 繼續할것으로 보이는데 小原法相으로서는 問題에 對하야 司法省으로서 이以上의 手段을 取할수업다고하고 고외서 萬若 司法省이 取해온 處置에 對하야 陸海兩相이 不滿하다고 할 境遇에는 小原法相은 깨끗이 辭職하고 責任을 負할 決心이라고 보이어 同問題는 政治的으로 極히 重大한 結果를 招來할는지도 모르게되엇다 一方 金森法制局長官의 進退에 對해서는 局長官을 辭退하는것이 特別한 難事도 아니오 同長官도 이미 進退를 決定하고잇다고 보히나 一面 一木樞相의 進退에 對해서는 政府로서 非常한 難局이다 이處置如何로는 政府自身도 樞相과함께 殉死치안흐면 안될 狀態에 잇스므로 機關說問題는 政治的 擧節의 接近과함께 內閣의 運命을 左右하는 實體를 漸次 現出해온 모양이다

蘇、黑海海戰隊 突然出動을受命

行先地는地中海方面

【電通부카레스트廿一日發】羅馬尼亞官邊의 情報에 依하면 蘇聯黑海海軍의 十五戰隊는 出動命令을 受하얏다고 하는데 그 行先은 다다넬스海峽, 多海島乃至地中海方面에 及할것으로 보인다

希臘艦隊 사軍港에集結

【電通아덴스二十一日發】希臘政府는 目下 土耳古의 이스탐불을 親善訪問中인 希臘艦隊에게 對하야 急遽 歸國하여 살로니카軍港에 集結하라는 命令을 發하엿다 右는 地中海의 險惡한 情勢에 鑑하야 萬一의 境遇에 備하려는것이라고 보인다

今日本紙四面

日曜氣配

▲株式 伊太利의 和協案拒絕의 情報에 氣配依然少壁을 呈하야 主力株의 押目買는 侮蔑키 難한바잇다 伊政府二十四日의 閣議가 가장 注目되고잇다

大新 六〇、今 鐘新 三〇、今 東新 一〇、四五 日產 今、今

▲期米 新米氣分과 相當한價格이되엿다고 高價實에 抑壓되나 作況이 稍良하든 北陸地方도 그後不順氣로 先約物賣謹人氣가 强하고 九月二十日調查의 第一回收穫豫想五千九百萬石이라고 보는편이만코 또 이보다 減收는 免키 難하야 二年繼續의 凶作과 環境良好에 依한 剩低觀으로 新米의 三十圓이 妥當하다고보는 人氣가 漸次로 濃厚化하고잇서서 仕手의 活躍及時局의 發展과함께 前途의 興味를 갑게하고잇다

今日의 日本內地天候는 北海道를 除한外 曇又는小雨 大阪地方曇雨模樣

農林省發表＝公定商價에 依한 米買申請 累計 三三〇、九二二俵 即一二八、三六四石八斗

米日爲替小高

前日과의比

賣 二十八弗七十六仙 三仙高

買 二十八弗七十四仙 三仙高

八面錄

大阪某紙의 朝鮮八景投票는 葉書洪水로 大盛況을 이루엇다고 떠드는데,

◇

一錢五厘式하는 葉書라할지라도 三千萬張이면 四十五萬圓.

◇

濟州島가 四百萬張이니 六萬圓이라는 巨金이 어대서 낫는가.

◇

普通學校兒童에게까지 投票를 勸獎한學校가잇고 郡民、農民에게 命令的賦課的으로 식힌 官員이 잇는까닭.

◇

八景이 밥을주나 옷을주나, 分錢모아 當選식힌利益은 財閥이 獨차지할노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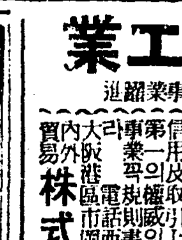
財閥의 심부름이라할지라도, 官吏의職分을 좀더생각해볼일

肺專門療養院
一、入院療養隨意 一、療養指針 一冊 一、入院案內書要 錢切手
院長 醫學博士 ... 副院長 金秉瑞
電話 ... 振替京城一七〇六九番

謹告
弊店에서 外交員으로 勤務하든 金壽東은 今日부터 解雇하얏고 同時에 一切關係도 解消하오며 今日以後로 發生한 事件에는 弊店에 責任을 負치안이하오니 各位께서는 照亮하시와 被害가업도록 하심을 要함
京城公平洞八八 電光七七一番 友助堂時計舖 白

부인선약 무효 만큼
인생에 행자가 생산 ...
京城府 ... 友利藥房

조흔家庭工業 最高의 社會意義잇는 大事業紹進
第一 ... 第二 ...
內外貿易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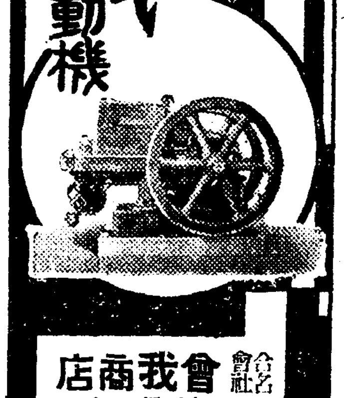

돈버리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1935年……秋冬用의 紳士服豫約
四階 三中井
아조貴한새각으로……
九月三十日까지引受

→回効散

齒痛과 頭痛에
効力이 速하고 評判잇는回効散은 神經痛에도가 장特効잇다고하야 어느藥店에나 最近에는굉장하게팔인다.
理論보다證據라니 한番試用하시라
本舖 大阪 森川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新入會員大募集
今秋特典
此際普通科新入生에게는 特典으로 其次號一冊을 無代로 配付하며 且兩科를 通하야 誠實繼續者에게는 各其學年末에 相當한 講義錄一冊을 無代賞與하고 入會金五十錢도 半減함
高等普通學科講義
普通學校第五·六學年 學科講義
高等科 三十冊 一冊 六十錢 一年三個月 卒業(速修)
普通科 十二冊 一冊 五十錢 一個年 卒業(隨意)
學則附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進呈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一八四四番 振替京城八八九五番
本會의機關紙인月刊獨學通信을每月無代進呈
우리朝鮮人本位의唯一한中等講義錄이며 朝鮮語、漢文學科가잇는것과 他講義錄에比하야會費도 거의半額임을注意하라

農林省御推薦
가도다 石油發動機 農工業用 型錄進呈

合名會社 會我商店 京城太平通二ノ一五八 電話本局二一六八番

永登浦朝鮮染色整理工場職工募集
男工 百名 女工 五十名
右十五歲以上二十歲까지 普通學校를卒業한者로서 品行方正한者
希望者는 寫眞、戶籍抄本、履歷書를 左記에郵送하고 十月二日부터 六日까지 每日午後三時로 七時사이에 本人來談할事
但女工은永登浦近處에住居者일것
京城府武橋町四十番地 募集事務所 李起柱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話光一一五九

內外國特許·商標一般事務
朝鮮特許代理局 (特許案內贈呈)
京城府光化門通二一〇 電話光化門二四七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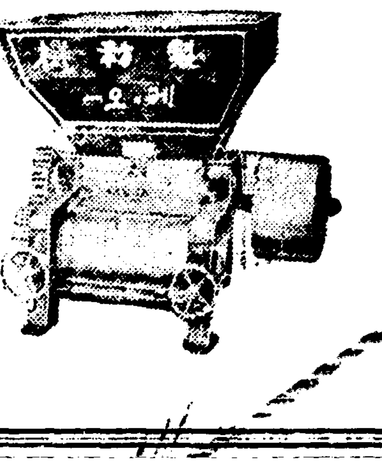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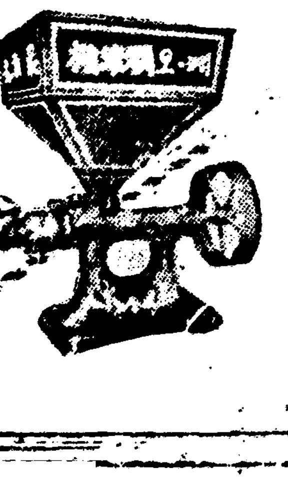
第一劇場
大衆料金 椅子席二十五錢 階上席十五錢 階下席十錢
九月二十二日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晝夜二回興行 十二時、三時半、八時
新興키네마社超特作 現代劇 金色夜叉 全十卷 高田稔 鈴木傳明 佐久間妙子
天才文豪紅葉山人의傑作!誰人을勿論하고金色夜叉(長恨夢)를小說로나映畫로서아실것이다!勿論이는안입니다 만흔高田稔와鈴木傳明 두사람의競爭演의大名畫!!
海上戰爭劇 헬 비 로 全十卷
巨匠작크、콘외이氏
로바트몬고메리氏
맛지、에반스孃
潛水艇A、L、十四號!海上의戰爭!敵機의襲擊!大西洋兩岸에彈丸!爆彈!砲聲!旋風과가티무리 들의가상을돌드난最大名篇!!
여러분의 鍾路四丁目 電光二七五番

從業員採用廣告
一、男子 (商業學校卒業者) 若干名
一、女子 普通學校五、六學年程度 若干名
但 女子로서通勤키難한者에限하야寄宿舍에宿泊을許함
織機에經驗이有한者는優待함
一、入社希望者는左記場所에問議할事
高陽郡崇仁面敦巖里一八九 泰昌織物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八五番
京城府鍾路四街 泰昌織物株式會社事務所 電話光化門六一〇番

卒業論文

はれやか 먹고서
(頭痛明快淸涼劑)

營業課目
케오-發動機
太平式精米機
太平式製粉機
太六式製油機
丸六式製粉機
ゴムロール式籾摺機
水車穀物製造
發動機ホーリング
唐箕萬石農具
最新式稻扱機
各種機械附屬品
シャフト・メタル
皮車ゴムベルト
ホールベアリング
其他傳導用品一式
諸機械直輸入及製作
케오-發動機

最新式製粉機

高級精米機

KO-石油輕油發動機製造發賣元
㊅太平鐵工營業部
京城蓬萊町一丁目七七(京城驛前) 電話長本局 一〇九三番 電略(タイ)又는(태평)
特約店募集 型錄進呈

拔群·榮座를征服한 燦然·樂壇의三新星

提琴 一等 文學準 聲樂 二等 高宗益 李仁範

本社音樂『콩쿨』審査結果

문학준군

고종익군 리인범군

약진하는 우리음악계에 가장 새롭고 중요한 한페지를남긴 본사주최의 제일회 전조선남녀음악현상경연대회는 이십일일밤 대성황리에 막을 마치고 곳 그밤으로 심사원 김영환(金永煥) 박경호(朴慶浩) 김문보(金文輔) 홍란파(洪蘭坡) 현제명(玄濟明) 제씨가 본사 귀빈실에서 신중 또 엄중히 고선한 결과 아래와 가티 발표 린(提琴科)에는 일등 문학준(文學準)군 성악과(聲樂科)에는 이등으로 고종익(高宗益) 리인범(李仁範) 량군으로 결정하고 피아노(洋琴科)에는 유감이나마 입상자가 업섯다 이가티하야 백십수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선출된 열네명 선수에 다시 선출된 세명은 이에 그 실력에 의하야 악단 등룡문의 첫 걸음을 것게 되엿것이다 그들은 콩쿨 첫 대회에 수상의 영예를 획득하야 금후 무수한 숨은 천재를 이 땅에 보낼 길을 열은것이다

콩쿨公開決選入賞者 提琴科 一等 文學準 聲樂科 二等 高宗益 二等 李仁範

審査委員會聲明書

今般意義깁흔 全朝鮮男女音樂競演大會를 朝鮮日報社에서 主催하여 意外로조흔 成果를엇게 된은 우리音樂界의 發展을爲하야 審査委員會로서도 深히感謝하는바이다

콩쿨의本旨는 懸賞의有無를不拘하고 音樂에天才와 또그研磨한實力을가젓스되 環境이不遇하여 音樂家로서 樂壇에나올機會를못가진 (콩쿨天才)에게 實力을 發揮할唯一한 道를 열어주려는것과 또現下卑俗한音樂이 氾濫하고 잇는이때에 콩쿨이 잇슴으로써 콩쿨을通하여가장精選된 藝術的價値가잇는 音樂을 一般社會에게 認識식히는 機會를 주게될도 이 콩쿨이가지는 重要한 意義가된다 그러고 本大會의審査는 最高賞의 獲得者는 演奏家로서의 資格을 認定할것인데 그方法은 各科를 獨立식히어가지고 그중에서 成績조흔것을 選拔하여 一等 或은二等으로 等級을 주는 것이아니라 各科審査를하여 콩쿨의入賞水準에 밋치는者에게 等級을 選別한것이다 그럼으로 入賞者가 同一한 水準에到達하엿다면 各科마다 一等이 一人以上잇슬수도잇고또 各科에各히 一等이업슬수도잇는것이며 二等도各科에數名式잇슬수도잇다 다시말하면 本콩쿨의 審査는 選拔을目標한것이 아니고, 各個人의音樂實力을 評價함에 目標를둔것이다 그結果入賞者를 社會에보냄에는 主催側과 審査委員會로서만 그責任을 가진것이 아니라 公開席上에서 發演되는만큼 一般社會人으로서도 그들을 理解하야 今後音樂界從事의 機會를주도록 有形無形으로 어떤義務感을 가저주기를 바라다 그리함으로써 그들이 압흐로 前進할수잇고 또音樂界를 爲함이 될것이다 또審査員들은 正當한 審査를 爲하야 萬全의 試驗을 가지고 그에 當함에 年復年實力잇는 後進이 繼出함으로써 先輩된 審査員自身으로도 一層自重케 되며 또研究에 倍前努力할責任을느긴다

콩쿨審査委員會

정중한 수상식장

感激歡喜에넘친 鄭重한授賞式擧行

콩쿨委員長本社方社長式辭 一等에百圓의副賞金

명여의 입상자 수상식은 이십이일오전십일시 심사원 제씨의 출석과 결선대회출연자 참석으로 본사귀빈실에서 열리엿다 몬저 본사편즙국장 김형원(金炯元)씨로부터 수상식연다는 사회가 잇고 이어서 본대회 위원장인 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씨로부터 초유의 음악콩쿨을 열어 다수참가자가 잇섯고 또 그중에서 우수한선수로 일등입상자와이등수상자두명을 어더사회에신인음악가로서 보내게된것은 악계를위하여 깃븐일이다 금후본대회가 거듭되면서 더훌륭한 천재를발견하야 악계의발전에 공헌이만흘것을 기대한다 동시에 금번입상사는금후 더욱허신하여 명일의대성을바란다 고 간단한식사에 감격한 흥사가잇슨후 입상자삼명에게 상장을수여하는동시에 부상으로일등에는 백원 이등에는 각오십원을 보내어음악연구의 도움을삼어 주기로 하엿다 다음에 심사원측으로 부터 홍란파(洪蘭坡)씨가 본대회가 무명의천재를 발견하려는주지에서 이에 삼명의입상자를 어든것은 심사위원으로서도 깃븐일이고 악계를위하여서도 반가운일이다 세분은 압흐로 일층정진하야 본대회첫입상자로서 금후 년년영구히 계속될본대회의 선배자로서 전도를더욱 개척하기를바란다 는간곡한 권사(勸辭)가잇슨후입상자를대표한 문학준(文學準)군의답사로서 수상은 끈내다 그러고 공개결선에 출장하엿든열네명 선수에게는 각히 대회출장 기념메달을 보내기로 하엿다

答辭

今番貴社主催인 第一回全朝鮮男女音樂大會의 社會的 意味는 再言할必要가 업는줄알거니와 百餘名應募者中에 淺學微才임에도 不拘하시고 本人等에게 그榮譽의 桂冠을 주시며 또아울러 厚賞을 네리심에는 滿腔의 羞愧와 感激의 情이 잇슬뿐 同社의말슴을 차질길이 업나이다 다만 이것이 本人等에게 잇서서 채죽을 加하여주심이 아울고 압흐로 더욱더욱 分勵을 다투어 이方面에 精進努力하야써 우리의樂苑에 한 적은 도움이 되기로 自誓함과同時에 貴社의意義깁흔 이事業이 年年 好成績을 보이어 우리樂壇에 燦然한 꼿치되어지기를 衷心으로 冀望하나이다

乙亥九月二十二日

入賞者代表 文學準

第一回全朝鮮男女音樂競演大會委員長 貴下

養正校卅年記念

故嚴柱益氏胸像除幕式과 廿年勤續職員도表彰

만삼십년 동안에 수만흔졸업생을 길러내여 조선교육계에 대한 공헌을 끼친양정의숙(養正義塾)의 창립삼십주년 긔념과 아울러 동의숙의 창립자인 고엄주익(故嚴柱益)씨의 흉상제막식(胸像除幕式)과 밋현양정고등보통학교의 교장으로잇는 안종원(安鍾元)씨외 이십년이상근속교원 표창식은 오는이십팔일 오후 두시 동교교정에서 다음과가튼 순서에 의하여 거행하리라는데 동교 졸업생은 물론 재적생의 학부형과 동교관계사회 다수참석하기를 바란다한다

土幕民相對 文盲退治美擧

三坂通秀英學院서

【京城】해빗조차 마음것못보는 토막속에서 죽지못해사러가는 적빈자들만을 상대로그들의 문맹을 퇴치해주고저 나제는 헙버슨 어린아이들을가르키고밤에는 일터로부터 돌아오는기진한 부형들을 모아연필과공책까지 거저주어 힘써가르키는학원이잇다=그는 시내삼판통(三坂通)에잇는 수영학원(秀英學院)으로서 지금으로부터 팔년전에 창립이 되여 이래록백여명의 학령초과된 적빈자의 자제들을 배양하고현재에도 재교생이 삼백오십여명이라는데 간호원하는 분이업써 유지하기에만흔 고통을바더 오든중 금년부터는 경성부와 경긔도에서 매년 이백원식의 보조를 밧기로되어다소유지하기에는 어렵지안케 되엿는데 이때동학원 원장김동규(金東圭)씨는더욱잘긔를 내여지난 십구일서 부터는 야학반(夜學班)을설치하고 한편으로는 학부형들까지 문맹을 열어주고저 무료교수를 시작하엿든바 첫날밤부터글자에 주린 남녀학부형들이 이백여명이나 몰려들어 대성황을이루엇다는데 더욱이 칭찬할바는 연필과공책까지도 전부제공을하고잇다한다

慈情을못이겨 棄兒차저授乳?

明治町孤兒院前棄兒犯搜查中 院兒에게授乳한殊常女

이달일일오후에 시내 명치정(明治町)천주교고아원(孤兒院)문깐에 나흔지 팔구삭 되여보이는 계집아이 한명을내여버리고 간일이 잇섯는데 그동안 본정경찰서(本町署)에서는 그범행자를 찻는중 이십일일 오후다섯시쯤에 그고아원문깐에 드러가서 그고아원에잇는 다른 어린아이에게 젓을먹이고 잇는자 한명이잇는것을 명치정파출소 순사가발견하고 그를 혐의자로 붓잡아다 류치취조중이다 그녀자는 강원도춘천(春川)출생으로 류씨(柳氏)라는 삼십삼세된 녀자인데그는 주소부정으로 사변전에남편도 죽고 쌍동이아들도 죽어버린뒤 울화가나서 이곳저곳으로 떠도라다니면서 어더먹고 사는터인데 그날그고아원아플지나다가 자기아이그리운생각에다른고아에게젓을 먹엿슴에 불과한것이엿다고 부인하고잇다 한다

十四道溝同胞村 十五六戶被掠奪

食糧과衣類等을頻頻强奪 對岸同胞不安滋甚

【咸興】함남도대안 장백현일대에 거주하고잇는 동포들은 련일횡폭한비적대들의 겁략으로 생명재산에 막대한위협을 밧고잇다 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이제또 십구일밤십삼도구도천리(十三道溝桃泉里)에갑자기나타난 무장비적대원십삼명은 조선인촌락을 습격하여 식량과 의류를 강탈하고 다시 상회국(常會局)의부하삼명은 또십팔일밤열한시경에 십삼도구서강성(十三道溝西崗城)조선인루장 정두해(鄭斗海)방에와서 요구한금품제공을 우금까지 내지아니햇다고 무수란타하여 등다수를강탈하고 그리고 박영화(朴永化)외일명을 인질로잡아갓다 그리고 십사도구요방자(十四道溝窯房子)이주동포의 촌락을 습격하며 십오륙호에서 의류식량을 강탈하엿다 수십명이 피난하엿고 또현재 로 십사도구동흥리(十四道溝東興里)조선인촌락에 대하여 명제공을 강요하엿는데 그와 동리주민들은 도저히 이러케 결딩고를 알두고 더욱 가튼 대금을 제공할길이 망연하야 협박과약탈등 횡폭한행동이 자심함으로 후난이 무서워서 즉시 고잇스며 민심은 극히동요되야 감으로 민심은 극히동요되고잇다 한다

慶南出生朴順甲 土兵으로부터歸順

【新義州】경남사천군사천면(慶南泗川郡泗川面)에본적을둔박순갑(朴順甲)은 수년전부터만주로 떠도라단이다가 작년봄부터 연한 긔회로 토병의때에 몸을던저 다니든중 자미가 업슴으로 봉천(奉天)에서 만주국에 귀순하얏다 그곳일본령사관에서 신분을 조사한결과별로 다른 범죄사실이 업슴으로즉시 본적지로 돌아가게하얏슨바 박순갑은 귀향도중 신의주에 들럿다가 신의주경찰서원에게 그래도 다른수상한점이 업는가하야 이를 류치하고 취조하다가 지난십사일 형사를 대동하야 본적지인 경남사천으로 돌려보내다고한다

京城府擴張後에는 鷺梁津配水不能

仁川水道에도不足

경성부에서는 룡산방면의 수도급수량이 약팔천돈 사백석을인천수도에서 힘을빌어와서 경성수도의 부족을일시적이나마 보충해왓는데 현재인천 수도수원지는 경성의약팔천돈 사용을제하면 인천과 영등포(永登浦)에서약삼천 오백돈을 사용할뿐인데 점차증가할형세에잇는 룡산측의수도 급수에대하야 이미포화상태에 잇는데 더욱이대경성이출현할때는 영등포에 급수할수도는 도저히인천 수도에서어들수업스므로 될수잇는대로제일긔확장중에 그것을 능히해소식입수잇도록 할게획이라한다

파입올간演奏

『파입올가니스트』로 일본악단에서 일홈잇는 대중인이(大中寅二)씨가 이번경성에온것을 긔회로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普)긔독청년회에서는 이십이일밤칠시반부터 성동례배당에서 씨의연주에의한 음악례배를 보기로하엿다

天氣豫報

晴

颱風은 中心七三〇耗假量으로 今朝는 那覇의 南東約三百키로의 海上에잇서서 進路를北東으로돌엿다 滿鮮地方의 高氣壓은 西伯利亞로부터 滿洲, 朝鮮은 天候가조코 東北地方은曇 中部以西는 비오기쉬웁다

昨日 最高 二十九度八 最低 十三度四

今日 正午 二十五度三

法王大使入京

天主教傳教百五十週年 記念式參加次로

로마법왕청 사절(使節)로동경(東京)에 주재하는 대사교(大司敎)포올마렐라씨는 십월삼일 사일 량일동안평양(平壤)에서열리게되는 조선선교 일백오십주년 긔념식에 참석차로 입전에 서울에왓다 명치정(明治町)천주교회에 도서는 이십이일 오후 세시에 그교회안에서 성대한환영회를개최하엿다 또 그의 이번 조선래도를 긔회하야 전조선각지의 천주교회를 순회할터이라한다

自轉車와衝突重傷

이십이일오전아홉시경에 시내서대문정일정목 일백팔번지 아풀지나든 시외신설리(新設里)리영복(李英馥)방 박천만(朴千萬)(三七)의 짐차와 시내당주동(唐珠洞)사십번지 김동수(金東洙)의집용인 김길동(金吉童)(一九)의자전차와 충돌하야 김길동은 다리에 중상을밧고 잡바진것을부근광중병원(廣重病院)에 입원시켜 응급치료중인데 전치한달가량의 상처라고한다

運動競技欄

第二高普의李君 八百米에新記錄

養正高普의連覇無疑 京畿中等陸上對抗戰

京畿道陸上競技協會主催의 第二回京畿道男子中等學校 對抗陸上競技大會는 二十二日 午前十一時二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리엇는데 京畿道內의 十二個校의 健兒들은 網羅한가운데 大島會長의 人事와 昨年度優勝校養正高普의 優勝旗返還이 잇슨다음 養正主將 吳壽泳君이 選手一同을 代表한 宣誓文朗讀이 끗나자 百米第一次豫選으로 競技의幕은 열리엇다 이날夕刊마감까지의 各校戰績은 다음과가트며 第二高普의 李敏弘君은 八百米決勝에 二分三秒九의 朝鮮中等新記錄을 作成하엿스며 常勝軍養正의 活躍은 더욱猛烈하야 再次優勝할것은 無疑하다

【百米一次豫選】A組1北野(京工)一一秒一 B組1李英敏(一高)一一秒九 2呂乙男(普成)一一秒七 2韓仲熙(養正)一二秒三 C組1松下(京中)一二秒四 2金世勳(普成)一二秒六 D組1李鍾瑗(仁商)一二秒一 2李景義(養正) E組1蒲田(龍中)一二秒六 2安鍾哲(中央)一二秒七

【八百米豫選】A組1李敏弘(二高)二分一六秒八 2松元(京師)二分一九秒八 3堀切(龍中) B組1權五衡(養正)二分二一秒五 2木村(京中)二分二二秒 3飯塚(京師) C組1牧野(龍中)二分一三秒八 2李漢榮(養正)二分一五秒七 3朴昌植(道商) D組1吳壽泳(養正)二分一三秒七 2山本(龍中)二分一五秒七 3金道鎭(一高)

【高障碍】A組1蘇鎭南(一高)一八秒 2鈴木(仁商)一九秒九 B組1藤野(京商) D組1別府(道商)二〇秒 2鈴木(京中)二〇秒四 C組1柴田(仁商)一七秒六(參考) 2安保(京師)一八秒四(本大會新記錄)

【投砲丸決勝】1白承旭(養正)一二米二二 2馬鍾國(養正)一二米一七 3金鍾植(一高)一一米四一 4李英敏(一高)一一米三七 5裵鳳守(普成)一一米一一

【四百米第一豫選】A組1崔榮善(普成)六〇秒八 2早川(京中)六一秒五 B組1李景義(養正)六九秒四 2木村(京中) C組1吳壽泳(養正)五八秒四 2山本(龍中)五八秒五 D組1朴昌植(道商)七三秒四 2中原(龍中)七三秒五 E組1牧野(龍中)六三秒六 2松岡(道商)六四秒四 F組1李克榮(一高)六六秒五

【千五百米豫選】A組1李敏弘(二高)四分三四秒二 2孫基禎(養正)四分三六秒五 3堀切(龍中) B組1李泰遇(二高)四分三七秒三 2韓龍善(養正)四分四二秒一 3金永福(普成) C組1金道鎭(一高)五分二秒三 2孫仙官(京工)五分三秒 3李漢榮(養正)

【百米第二豫選】A組1李英敏(一高)一一秒六 2北野(京工)一一秒八 3松下(京中) B組1李鍾瑗(仁商)一一秒八 2蒲田(龍中)一二秒 3李景義(養正)

【高障碍第二次豫選】A組1柴田(仁商)一七秒五 2蘇鎭南(一高)一七秒八(以上本大會新記錄) 3安保(京師) B組1安保(京師)一九秒四 2鈴木(京中)一九秒五 3別府(道商)

【棒高跳決勝】1蘇鎭南(一高)三米四〇(朝鮮라이記錄及本大會新記錄) 2安保(京師)三米二〇 3柴田(仁商)三米一〇 4鎌田(京商) 5上水(京師) 三米 朴勳緖(仁商)同上 鈴木(仁商)同上

【八百米決勝】1李敏弘(二高)二分三秒九 2牧野(龍中)二分四秒八(以上朝鮮及本大會新記錄) 3李漢榮(養正) 吳壽泳(養正)

【二百米第一豫選】A組1李英敏(一高)二五秒一 2李鍾瑗(仁商)二五秒二 B組1李景義(養正)二四秒二 2內海(龍中)二四秒五 C組1張基虎(普成)二五秒七 2佐佐木(京商)二五秒九 D組1木村(京中)二五秒八 2金世勳(普成)

中等庭球爭覇

第三回戰부터의戰績

京城藥學專門學校主催의 第五回全朝鮮中等學校選手權大會兼明治神宮朝鮮中等代表選拔會第二日은 二十二日午前九時五十分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第三回戰으로부터 開戰한바 實力伯仲한 各選手의 妙技連出하야 戰勢는 白熱化하고잇다 (當日夕刊마감까지戰績)

【第三回戰】
徽文(閔丙琓 崔炳宙)4-0 道商(具貝 瀨田)
養正(任完淳 趙世元)4-2 仁商(崔亨集 金東玉)
平高(林燦鎬 崔淵洙)4-0 京工(金鍾元 尹鳳賢)
東星(李相綸 金容寬)4-3 徽文(中東旋 金鍾遠)
二高(閔丙王 劉俊澈)4-2 普成(李成泰 宋在願)
徽新(朴龍振 崔慶福)4-2 京商(小柳 中島)
平農(金世羽 金潤豐)4-1 善隣(吳潤根 方盛基)
二高(李文淳 李銖基)4-2 普成(李昌受 田文秀)
養正(張受謙 金沃周)4-0 龍中(沼田 瀨田)
道商(尹錫彩 金貞泰)4-1 培材(金昇洙 金龍泰)
徽文(李景燁 金亨泰)4-3 京中(大田 中前)
普成(李相瑍 黃秉坤)4-3 善隣(宋三鉉 金世鎭)
善隣(宋在白 金炳斗)4-2 普成(尹容讚 金元福)
養正(朱漢鎬 尹泰淑)4-3 鏡高(尹鳳煥 金永澤)
鏡高(李容海 吳莘變)4-2 道商(具貝 谷田)

【第四回戰】
中東(鄭禪斗 安芳善)4-1 養正(金性周 金成學)
徽文(閔丙琓 崔炳宙)4-2 養正(任完淳 趙世元)
平高(林燦鎬 崔淵洙)4-0 東星(李相綸 金容寬)
徽新(朴龍振 崔慶福)4-2 二高(閔丙王 劉俊澈)
養正(朱漢鎬 尹泰淑)4-3 鏡高(尹鳳煥 金永澤)
平農(金世羽 金潤豐)4-2 養正(李文淳 李銖基)
道商(尹錫彩 金貞泰)4-2 養正(張受謙 金沃周)
徽文(李景燁 金亨泰)4-2 普成(李相瑍 黃秉坤)
中東(鄭禪斗 安芳善)4-1 鏡高(李容海 吳莘變)

朝鮮拳鬪俱 紅白試合

創立八週年記念

世界的권투出場을 目標로 하는 朝鮮拳鬪俱樂部에서는 創立八週年記念으로 來 十月五日(土)午後二時부터 慶雲洞東一銀行庭球場 特設링에서 部內紅白拳鬪大會를 열리라는데 當日은 極東選手權 保持者 朴龍辰以下朝鮮選手權保持者 李奎煥, 朴春緖 金裕昌等 選手가 總出場할터이라한다

●十月豪華作●

落花三千

新民謠界의太陽 新專屬 盧碧花 第一回傑作盤

百濟七百年의 最後를읊조른 哀切慘切한노래외다 三千宮女의血淚曲。

流行歌 容月(B) 崔南鏞

二朴英鎬詩二

1 바람은 나불나불 물빗촌 七百年
물결은 우줄우줄 소리는 三千紅
◇
(후렴) 어허리 장하고나 삼천열이여
천만수 꼿이되여 길이피소서

2 後百濟옛거리에 봄물이나리면
泗沘城넘나드는 갈일흔꼿송이

3 피배인 물이랑은 반석을휘감고
落花는 물에안저 가신님불으네

二李基英曲二

8161	流行歌	꼿피는江南 / 月光恨	姜石燕 伴奏·太平管絃樂團
8159	漫謠 / 流行歌	비빔밥 / 바다의狂想曲	崔南鏞 姜石燕 伴奏·太平管絃樂團
8160	넌센쓰	要건대哲學 / 가을의三銃士	朴世鳴 申銀鳳 唱·太平合唱團
8163	流行歌	悲戀 / 不夜城	崔南鏞 伴奏·太平管絃樂團
8162	正樂	軍樂 / 界面	高載德 崔壽成

태평레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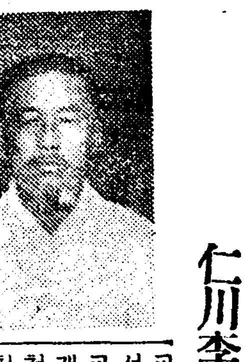
一面一校完成돼도 收容은겨우二割九分
十四萬兒童은依然路頭彷徨
寒心한黃海道敎育狀況

【海州】황해도 학무당국에서는 총독부방침에 의하야 일면일교계획을 목표로 그시설공작에매진하는터로서 금년도에 보통학교 신설과 간이학교 십칠개교를 시설하엿는데 명년도시설예정교 십칠개교를 신설하면일면일교가 완성되여 시급한초등학교입학난문제도 다소완화되리라한다 그러나 학무과에서 조사한 취학아동상황을보면 금년 삼월말현재 학령아동 총수 이십만사천륙백사십오명중 취학아동총수는 륙만오만팔천칠백명으로 미취학아동총수는 십사만오천구백사십오명이란 놀라운수자를 보이고잇다 그리하야 일면일교가 완성되여 전도내에 이백칠개학교가설립되여 현재보다 칠천이백사십명이 더수용되여 취학아동총수가 륙만사천사백여명에 달한다하드라도 학령아동의 이할구부박게 수용되지못한폭으로 나머지 십사만여명의 아동은 의연히 길거리에방황할것으로 황해도의 초등교육의정도는 실로암담하다한다

海州高等普校 學藝展覽盛況

【海州】해주고등보통학교(海州高普)에서는 지난이십일 오전구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제십회학예회급전람회(學藝會及展覽會)를 개최하엿는바 대성황을이루어섯다한다

公普校運動場費로 金三千圓을喜捨
仁川李興善氏의盛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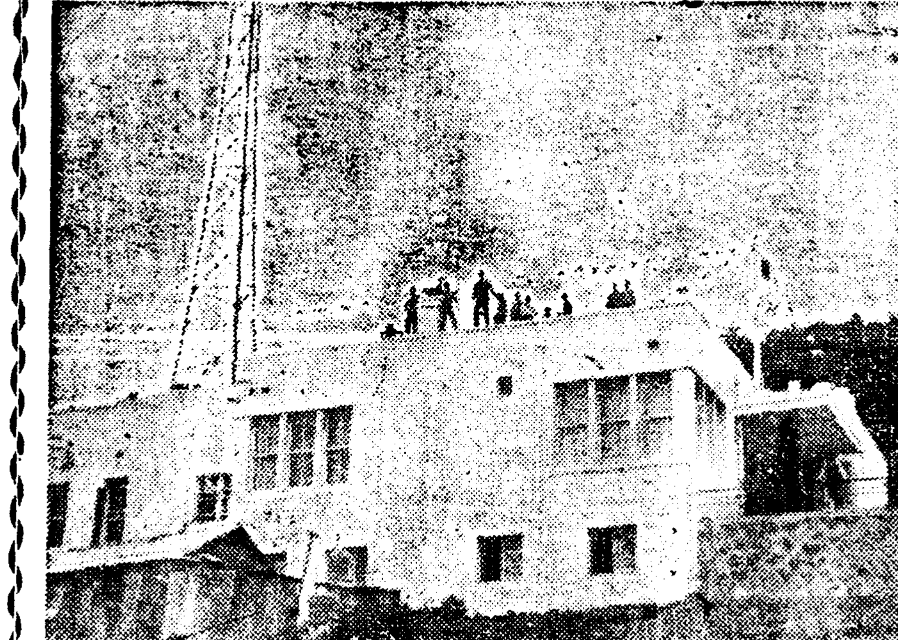
【仁川】인천여아동을 수용하고잇는제일공립보통학교는 항상그운동장이 협착한관계로 아동보건문제는물론 일반학부형측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하든중 지난이십일동학부형회에서 이를의론하든중 돌연리흥선(李興善)씨로부터 긔지매입예정지사백칠십칠평에대한 대가를 단독부담하겟다는 쾌지를보임에 학교직원은물론 일반학부형들도 그의특지를 감사히여일뿐아니라 씨에대한 평소의 공덕심을 칭송하야마지아니하는중 더욱이 지주광강태차랑(廣江澤次郞)씨는 현시가의 삼분일을 감한 이천삼백팔십오원만을 밧기로한 미담이잇다한다

◇寫眞…李興善氏

私立普英學校 慰安音樂盛況

【北栗】재녕군신환포사립보영학교(新換浦私立普英學校)에서는 지난십사일오후팔시에 동교교정에서 학부형위안음악회를개최하엿섯는데 관중이 무려삼천여명에달한 성황을일우운 중 천진란만한 어린학생들의 땐쓰, 유희, 독창, 가극등은 일반관중에게 만흔늣김을주고 동음악회석상에서 동정금이 팔백여원이 들어와다는바 동정금을내신 분의방명은 아래와가다한다

金元根三百圓 金在涉一百圓 裴東三五十圓 韓熙鳳三十圓 金忠均五十圓 金成鎬三十圓 金鶴聲三十圓 崔在必 金光五圓 金錫用一百圓 白壽欽二十圓 崔東元二十圓 金光杓二十圓 鄭利鉉十圓 金炳九五圓 金鍾洙五圓 成樂官十圓 金炳弼二十圓 李東奎五圓 崔錫斗五圓 (五圓以下省略)



三、四十錢버리에 목숨을밧친女子
그裡面이悲絕慘絕

【新義州】지난 십구일 오후한시경 신의주 압록강철교아래 제함회사(製函會社)압 떼목사이에서는 소오조롱을 등에지고 물에 꼿꼿이서서 죽은녀자의 시체가 발견되얏는데 경찰이 검시하고 내용을 조사한결과 비절참절한 가련한사정이 숨어잇섯다 즉 그녀자는 평북구성군리현면 구약수동(龜城郡梨峴面藥水洞)에서 농사를지여 살든순구씨의 빈한한 살림을 하든최씨(崔氏)로 한늘가치밋고지나든남편이 병마에 걸리어 세상을 떠나자 슬하에는 열여섯살, 열세살, 아홉살의 사형제가 최씨에게 매여달리게되얏다 그나마, 맨긋테 다섯살된 아해이 외에는 모다불구자로 녀자의 한몸으로서는 이네아이를 버려먹일도리가업섯다 그리하야 금년사월 아이들을 잇끌고 신의주로 굴러와 신의주마전동 엇던집의 벽장한간을어더가지고 네아이를 그벽장속에 너허둔후 자기는 그곳서 이십리나되는신의주부외 오마동(五馬洞)으로부터 대안안동현에서 소주를 소오조롱에 너허서 밀수를하야 매일 삼사십전의 버리로 아이들을 먹여와다 그런데불행히도 지난 십칠일 오후여 다른 밀수군 몃사람과 함께 안동현으로부터 밀수한 소주를 너흔 소오조롱을 등에지고 배로써압록강을 건너오다가 배로부터 나리든차에 이것을 엿보고잇든 세관리가 총을노흐며 따라옴으로 그만놀래여 물속으로 뛰여드럿다가 물에빠지어 소오조롱을 등에진채로 참혹히 죽은 것이라한다 시체는 다행히 역시 빈한하게사는 사촌남동생 리문면(李文勉)이가 인수하야 간신히매장하얏스나 제비색기 모양으로 그어머니가 먹을것을 가지고 도라오기를 벽장속에서 입을벌리고 기다리든 네아해의정경은 참아볼수업는 광경이엇다 고한다

飮毒自殺未遂

【仁川】시내 항정(港町)일정목이십구번지 홍복만(洪福萬)의처 김사월(金四月)(二〇)은 상공용녀 고용녀 생활하는것을 비관하든중 지난이십일 오전령시반경에 다량의 아편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곳 부근 목회(牧會)병원에 입원하야 응급수당을 가하얏스나 생명이 가장 위독하다는바 동아편의출처가 수상하야엄중조사중이라한다

密、蔚聯絡道路 兩面爭奪戰開始
自己面通過를各自主張

【密陽】밀양군 산내면(山內面)을 통과하여 울산군으로 가는연락도로 속성에대하야 얼마전에 적극산내면에서 요로당국에 진정한바 잇섯스며 일변 밀양군 단장면(丹場面)의 재약산(載藥山)을넘어 울산으로 가는도로도 유망하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과연 단장면측에서도 지난구월십칠일 동도로를 단장면을통과하도록 하여달라는 삼백여명의 연인한 진정서를듯고 면장이하각층의대표팔인이 밀양군에 진정하엿는데 동도로가 탕군경제에 획기적발전을 촉진할뿐아니라 동해안과의교통상 중요한 도로인만큼 전군당면의 동도로쟁탈전은 압후로 더욱맹렬하리라는바 일반은 그류로 말미암아 도리혀 그실현이 늣저지지나안흘가 념려한다고한다

廿餘萬圓工費로 赤布橋遂竣工

【釜山】소화팔년도 발벌에 총공비이십이만원으로서 경남창령군리방면현창리(昌寧郡利房面玄倉里)와 합천군 청덕면앙진리(陜川郡靑德面仰津里)간에 긔공한 적포교(赤布橋)는 요지음 준공되여서 지난십구일정오부터 동교현장에서 관민다수집합리에 준공식급초도식을 성대히 거행하얏다한다

自作農年復減少 늘는것은小作農
五個年間二萬四千戶의激增
咸南農村의疲弊相

【咸興】조선농촌의 피폐하여가는과정은 날로현저한바 더욱최근에는 년부년금격한피폐현상을 뵈여주고잇다 이제함남도농무과 통계에의하면 대정 십삼년부터소화오년도까지 칠년동안에 자작농이일만여호가 감소되고 그대신 소작농이 륙천여호가 증가되고잇는바 다시소화오년도부터 소화구년도까지 오개년간에는 팔천여호의자작농감소와 이만사천여호의 소작농격증을 뵈엇다 이제수사적으로보면 다음과갓다

	大正十三年	昭和五年	昭和九年
自作	[illegible]戶	[illegible]戶	[illegible]戶
自作兼小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月谷普校開校

【禮安】경북 안동군 월곡면(月谷面)에서는 아직까지 초등교육긔관이 업서서 만흔 불편과큰유감으로 지내오든바 작년 칠월경에 면내유지백여명이 회합하야 공보교설립긔성회(期成會)을 조직하고 갑부재씨의 헌신적활동을한결과 지난십구일 구계서원(龜溪書院)가교실에서 칠십이명의 신입생 입학식과 학교개교식을 다수래빈참석리에서 대히거행하엿다한다

艾妻의醜貌를憎惡 毒殺企圖타發覺
十九歲少年의大膽한行動

【大邱】마누라의 얼골이 박색인것을 한탄하고 독약(毒藥)으로써 살해하려다가 미연에 발각되여 상주경찰서에 체포구금된 청년이 잇다 ― 그는상주군무동면신천리(尙州郡牟東面新川里)거상배(金尙培)(一七)란청년으로 그처되는 조경순(趙慶順)이가 넘우나 박색이여서 가구렵에 평생을 살수업슴으로 지난구월오일 오후세시경에 그처가집에 잇지안흔 틈을타서 미리준비하야두엇든 류산동(硫酸銅)오룸메를 물에 풀러서 저녁밥에 너허서 두엇다가 자긔처가도라오자 그독약너흔밥을 권하고 박게 나가서 죽기만 고대하엿든바 밥을바든 경순은 남편의 행동이수상할뿐더러 밥빗이 청색이되여잇슴으로 먹지안코 개를불러 먹엿든바 그개가 즉사한것을 보고 독약든줄 확인하고 일반사람들에게폭로하야서 경찰서원에게체포되엿다고한다

釜山放送局 開局式擧行

【釜山】조선방송협회에서는 금번조선제이의 도시인 부산부에 방송국 설치를 계획하고 금년삼월경에 부산복병산(伏兵山)중복에 총경비십오만오천여원으로 국사건축과 긔계장치등을 하야오던바 요지음 완성되엿슴으로 지난이십일일 오후한시부터 부산공회당에서 각관계자급 일반유지오백여명 참집하에 개국식을 성대히 거행하얏다는데 동방송국의 호출부호는 JBAK이라하고 현재청취자는 약삼천여명이라한다

寫眞―竣工된釜山放送局(鎭海要塞司令部檢閱濟)

廿二日(日曜)

◇午後六時 하ー모니가二重奏 一、詩人과農夫…숍페作曲 二、愛酒歌下…빠그너作曲 三、愉快한대장간…떼러作曲 四、野崎村連彈…松原編曲 五、인듸안 단스…婚姻編曲 第一하ー모니가 金生峰 第二하ー모니가 崔星在
◇同六時二〇分 兒童日曜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講話 裵德榮
◇同七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 黃昏의나그네 全二景 放送劇新人會 演出 李如水 效果 效果班
【配役】(金容培貧金鵬商)……李流星 崔英愛(그의처)……李貞淑 朴春植(盲目乞人)……金海雲 입뿐이(그의딸)……朴貞姬 宋承益(포장사)……尹芳澤
◇同八時 歌詞 一、길군樂 二、黃鶴詞 安鶴仙 文明仙 大笒 金永根
◇同八時三〇分 파이프·올간獨奏―貞洞禮拜堂으로부터中繼― 一、前奏曲 코라ー르 프ー게…大中寅二作曲 二、아다지오…프랑크作曲 三、歌調曲(메시나中에서)…헨델作曲 四、마리아의자장가 레ー가ー作曲 五、幻想曲…大中寅二作曲 六、코라ー르前奏曲…바첼벨作曲 「내가이세상에서떠나는때」에依하는變奏曲 大中寅二
◇同九時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卞山月 朴紅月

廿三日(月曜)

◇午後〇時五分 映畵이야기 處女湖 李承雨
◇同三時一五分 兒童健康週間 (一) 沈熙澤
◇同六時 兒童劇 베니쓰의商人 全一景 (配役) 判事…朴慶完 副判事…朴京子 書記…方鍾福 秘書…安玉煥 仕…柳華植 샤일록…朴永浩 안토니오…趙順吉 그의동무A…李基元 同B…李來亨 傍觀人A…李換元 同B…朴基選 出演 朝鮮兒童劇硏究所 序詞朗讀 方鍾福 演出 金漢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高永煥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雅樂―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一、管樂 動動 二、細樂 水龍吟 李王職雅樂部員 指揮 雅樂師長 咸和鎭
◇同八時二〇分 (東) 바이올린獨奏 一、론도…모ー차르트作曲 二、니ー근…브롯호作曲 三、西班牙舞曲…그라나도스作曲 四、부르레스케…스ー크作曲 니콜라이·시메르·블랙드 리지아·샤피로
◇同八時五〇分 古談 林慶業과許英 朴寅成

廿四日(火曜)

◇自午前一一時五〇分(東)野球 至午後六時 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리ー그戰
◇同六時 合唱 京城保育學校合唱隊 指揮 洪蘭坡
◇同六時二五分 趣味講話
◇同七時三〇分 離別歌外 1、리별가 2、노들강변 3、사발가 4、늴리리야 5、밀양아리랑 6、어랑타령 林明月 細笛高載德 短簫崔讚成
◇同八時 流行歌(레코ー드演奏)
◇同八時一〇分(東)獨唱 一、1、피에저우시는(니그로聖歌、바래이編曲)2、설은고」(스키ー파作曲柳園子譯詞) 3、金옷에서(로날드作曲) 二、1、富士山을 볼때엔(久保田宵二作詞橋本國彦作曲)2、신들메(濱田廣介作詞橋本國彦作曲)3、芭蕉(北原白秋作詞山田耕作曲)4、비과함께(三木露風作詞山田耕作曲)5、바다가갈에기게(日本古謠山田耕作編曲) 6、포르트西衣(西條八十作詞山田耕作作曲) 三、歌劇「五月의夜」 레비고의 詠唱 림스키、꼴사곱作曲 2、벼룩이노래 무솔ー그스끼作曲 堀內敬三譯詞 藤原義江
◇同八時四五分 漫談여섯개 1、生存競爭 2、名談 3、自力更生 4、기우러저가는집 5、게(蟹)상 6、英語博士 7、기ー나단배ㅅ대
◇同九時〇五分 赤壁歌外 1、赤壁歌 2、執杖歌 3、平壤歌 4、노래가락 金永煥 金泰運 崔蓮香

曆

九月廿三日(月) 舊八月(乙酉)(大)廿六日 壬寅·金·心·執
●白露八日(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廿七日)

그女子의一生 (214)
回光篇 春夕 園作 影畵

인현은 금봉을 다리고 선암으로 올라왓다 그러케 험한 길이언마는 금봉은 인현에게 끌려서 힘드는줄도 몰랏다。 금봉은 이러케 깨끗한 사랑ㅅ속에 도를 차자가는것이 깃벗다 마음에 정선이나 아당이가 어른거리지아니 아니지 마는 그래도 마치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떠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는듯한 가튼 깃붐을 느끼엇다。 파라케 머리를 깍은 제모양이 눈압헤 얼른 보일때에 금봉은 우둑서서 제 장래를 처량하게 바라보앗다。산 마루에 올라서니 하늘에 다흔 봉오리에 위태하게 달린 선암이 보엿다。

「아머니、저긔서 어떠케 사라?」

하고 금봉은 금방 굴러나릴것 만 가튼 선암을 보고 놀래엇다。

「왜?」

하고 인현은 뒤를 돌아보앗다

「여긔서 · 바라보기만해도 핑핑 둘려요。저 천야만야한 비탈로 송도리채 굴러나려갈것 가튼데」

하고 원통스럽 바다에 물 호르는것이 하늘 놉히뜬 흰구름 즐기 가튼 꼴자구니를 나려다 보면서 금봉은 무서운듯시 인현의 팔을 잡고 밧삭 제 몸을 인현에게로 붓첫다。강선대 꼭대기에 속낙을 너슬너슬 단 뼈만 남은 늙은 향나무들이 푸른하늘을 찌르고 섯다。선암 뒤 벼래에서 사람들이 어물거리는것이 헛개비가티 보엿다。

「하늘 반공에 뜬것 갓해」

하고 금봉은 또 한번 감탄한다。

「이런데 올라와야 세상 번노가 좀 멀어지지。」

하고 인현은 암자를 향하야 합장하엿다。

「그런데 저당벼라가튼 비탈에서 사람들이무엇을 하고 잇수?」

「수미암 넘어가는 길을 닥노라고 그런단다。」

「저 꼭내기에 또 암자가 잇수?」

「수미암이란것이 잇지。칼날가튼 등성이를 넘어가서。금강산에서는 제일 꼭대기 암자지。원효(元曉)라는 신라스적 중이 영랑선인을 득도시킨데라다 야운(野雲)조사라고。이선암이란데는 박빈(朴彬)이라는 거사가 도를 닥가서 우선으로 하늘에 올랏다는 데구。」

「하늘에?」

「그렇。하늘에 올라다고。」

「호호호호」

「왜 웃니?」

「오빠는 바빈거사가 하늘에 오른것을 밋수?」

하고 금봉은 웃어버렷다。

「남 올랏다는데 안 올랏다고 할것은 잇나?」

「호호。그러킨 그래。」

선암은 텡 부엿다。사람들은 다 길닥으러 나간것이엇다。

마당은 좁지마는 역시 깨끗이 쓸어서 비ㅅ자욱이 꼽게나고 틈에는 모도 꼽게 드듯이 입혀잇섯다。집은 납앗지마는 깨끗이 거둔것이 돈도암보다 더 한것 가텃다。

「퍽은 깨끗해。깨끗한것 하나는 조하。」

하고 금봉은 사람 업는 것을 다행으로 이리저리 둘러보며 인현을 보고 중얼거렷다。

「정불국토(淨佛國土)라고 부처님 땅을 깨끗이 한다고 해서 물가에서는 무엇이나 깨끗한것을 숭상한단다。자조 쓸고 훔치고 부시고 빨고、누데기라도 때가 무더서는 못 쓴다는것이어든」

「그것이 올키는 올아。그런데 빨래들은 누가 하우?」

하고 금봉은 이사내들만 모여사는 나라의 일이궁금하엿다。

「저마다 제것은 제가 하지」

「떨어지면 꾸어매기는?」

「다 제가 하지。옷갑 바꾸어다가 새로 짓는것도 제가 하고。」

「오빠 입으신것도 그럼 오빠가 지으섯수?」

「그럼。」

금봉은 인현의 옷을보고 빙그레 웃엇다。 딴은 이따위로나 바느질을 하는것은 암모나 하리라、한것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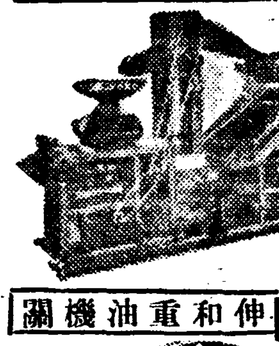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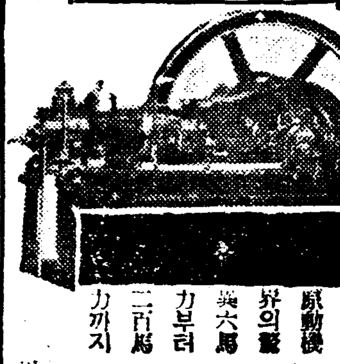
「송옷도 제가 · 뒤집구?」

「그럼。중의 옷이란 두벌뿐이어든。송바지저구리 두벌이면 고만이어든。봄이 되면 송을 빼으면 겹옷이오 여름이 되면 안팍 거죽 뜨더노흐면 고의적삼 두벌이 되지안느냐。한벌 빨래에는 한벌 갈아입고。그러니깐 중에 등에 걸머지는 바랑하나면 고만이야。세간이 그것뿐이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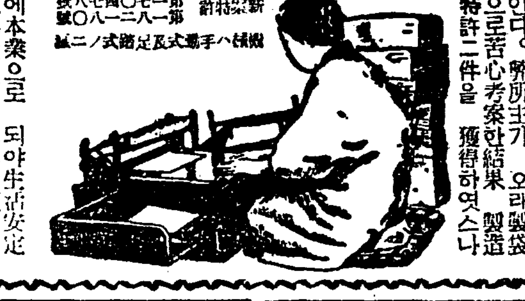
速히나슨는淋疾藥 特製 루ー베리
골음、압흠 곳곳침
藥價二円、三円、五円、十円 大阪市南久太郎町堺筋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全國到ル處ノ藥店ニアリ

感 そのまゝ 溝てく質の姿らぬ サック 現代人の衛生には ラッキースキン 防毒に産制に 日本ハナキゴム製造所

金銀 福 白金
東京市下谷區練塀町 株式會社 石福商店 出張所 平壤府旭町

特許 伸和式自動籾摺機
伸和籾摺機

伸和重油機關

伸和式 重油機關 自動籾摺機 配給所
來二十日부터 五日間鎭南浦農具展覽會場에서 實演展覽에 供하오니 希望者는 와보시라
京城府元町一丁目百十七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四三七番・振替京城一八二四三番

우배채벌네전멸약
京城鍾路四丁目 日光堂藥品部

副業에紙袋製造
近者新聞紙上에 여러가지職業이 宣傳되고잇스나 婦女子라도 손쉽게小資本으로 될수잇는 깨끗한일로서 紙袋製造만큼 適當한것은 아마업슬줄안다。弊所主가 오래製袋商으로서의 經驗으로苦心考案한結果 製袋機를完成한 新案特許二件을 獲得하엿스나 素人이라도 처음부터 製品에 好劣이 안나고 自手完全하게될수 잇스니 我國唯一한 簡易製袋機로서 자랑할수 잇는것이다。現在弊所의專屬으로서 製造者를 急募中임으로 市內地方을 不問하고 希望者는 오래營業을 하고 確實한去來를하는 當所에 申込하라 副業으로부터 未久에本業으로 되야生活安定을 꾀하도록 懇切히希望한다。照會次第 袋販引의表를進呈합니다。

新案特許 第一七〇四八號 第一八二一〇號
大阪市天王寺區堀越町四一番地(アベノ橋北一丁) 合名會社 江商製袋工業所 電話天王寺二六一七番 振替大阪一三八〇五、八一〇六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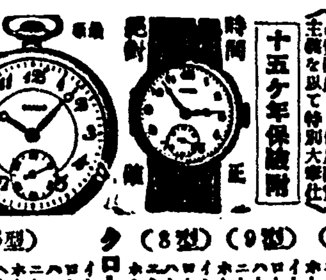
두통과치통에 노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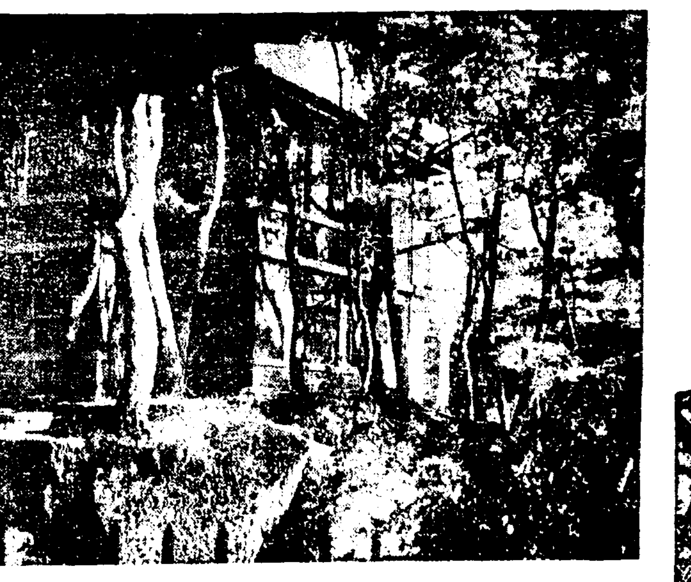
政府允許 六方堅法器 絶對療法

蛔虫빼는데 맛잇고잘듯는 珊篤尼涅菓子

全國各藥店에잇슴 岩崎大海堂 セメンシ菓子

九月二十一日부터特別公開 地下室 自動車로주신戀愛 구레오파트라 兄弟鴉 櫻井町 本町 大正館


十五ケ年保證附 クローム側時計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溪谷을 다툼질치는 물결! 靑靑한樹木 바야흐로 가을빗치 깃드려 靑地紅糸로 수를 노은 佳境! 이런곳이 서울장안에서 그다지 멀지안흔 城北洞을말함이니 文明의雜沓과 貴廉에 시달이는우리 都會人에게는 唯一한 慰安地이며 歡樂境이올시다 今般 小生이 生覺한바가잇서 좀더 새로운 抱負와 여러분의 期待가 비저내인 形式으로


이佳境에다가 料亭을 新設하고 斯界權威잇는 料理人을 招聘하여 味覺을 刺戟식히는 이가을에 마ー치맛는 準備가 完備되여 九月二十六日부터 開店케 되엿사오니 하로에 疲勞를 慰安식히기 爲하여 散策兼來亭하시여 愉快한하로를 보내시기를 바람니다
昭和十年九月 日
市外崇仁面城北里一三番地 朝鮮料理 飮碧亭 白 電話光化門一八六番

文藝物全盛時代? 映畫化되는 名作小說

레뷰映畫는벌서한물지나

새로운形式의 藝術로서 映畫가 登場한것은 아즉도 日淺하지 안한것은 아니지만 藝術的映畫의製作이 極히 드문것만은 事實이다. 그러키때문에 지금도 藝術로서 映畫를 拒否하려는頑固가 업지 안하나 그것은 映畫의罪가 아니요 映畫를 製作하는사람 乃至映畫를 보는사람의 罪다. 映畫藝術이 獨立藝術의 效果를 낼수잇다는것은 그特質을 이루는點에 틀림이업스되 當面의 低級한趣味나 嗜好를迎合하기 쉬운樂觀도 엇서서 一利의反面 一害를 無視치못한다 오늘날까지의 映畫로 보더라도 그多大數가 低級的趣味나 嗜好를 迎合하는데 지나지못한다. 더구나 近者의 頹廢的氣風은全藝術의 領域을 風靡하고 잇지 안한가? 그中에서 映畫가 빠질리는 萬無할 것이 아닌가? 所謂 짜스映畫니 戰爭映畫니 하는것은 모도다 그러한部類에屬하는것이다. 多少의眼目이잇는사람으로서차마 腫迹이남境이언만 그映畫를 製作한會社에서 그로써 缺損을 보앗다는소문은 듯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低級의映畫도 이제와서 한고개를넘어서서 요사이는 純精한藝術과 文學을 共調로한映畫가 만히 生産되는 모양이다. 이것은 藝術的으로 조흔現象의하나로서 映畫藝術의 向上을爲하야 無限한깃봄까지를 禁치못한다

푸레데릭마—취의 『噫無情』

빅터, 유고—의 이름과가티불후의 명작이라고 떠드는 라, 미제레블이 영화화 되얏스니 라 미제레블은 조선에도 널리 알리워잇는소설의 하나로서 그영화가 수입되기를 고대하는 팬들도 적지안하다. 짠, 발잔으로는 푸레데릭, 마리가 나오고자벨룬는 촬스, 로톤이 나오는데 『헨리팔세』에서 일반을 경탄시키어노흔 로톤의연기는 그전편에잇서서 압도의늣김을 주고잇다

더글라스의 「돈•판」

『알렉산더—콜다』는 映畫『헨리—八世』를 發表하고서 全世界를 驚倒시엇다 이映畫는 不幸히日本에 건너와서 公開禁止가 되엿지만 이한篇을가지고 英國映畫의 存在가 米國의 권위를 歐洲映畫界의 鬼才란 稱號를 밧게 되것이다 이『돈•판』은 『헨리—八世』의 다음으로 『콜다』 自身이 메가폰을 드러가면서 監督한 『론돈、필름』 會社의 超特作인데 痛烈한 아이로니와 諧謔으로 되여잇서 所謂어 른들 이 볼만한 映畫로 되여 잇다 『더글라스•페아뱅스』의 『돈•판』을 主役으로하고 『베니타•휸』 『마알오베론』 『비니—•한슨』 等의 『론돈필름』社의 精銳分子라고할 만한女俳優들이 助演햇다 脚本은 『帝國호텔』을 쓴 『라—조스•빌로—』와 『푸레데릭•론스데일』이며 撮影은오랜동안 名監督『루네•크레—르』의 『미레이은』 『조르주•페리나—르』이다(朝鮮서上映된다면『유나이데드』社系統常設館에서 하게 될모양)

本報讀者優待

猛獸映畫 로—스트 쩡글

來二十四五兩日間朝鮮劇場에서

긴긴밤 선들거리는바람 讀書의 『씨—즌』이라고하지마는 또 終日토록 疲勞한 心身을 休養하기에 適當한 娛樂의 『씨—즌』도 이때입니다. 아직도 우리네에게는 映畫에 對한 常識이 一般으로 普及되지는못하엿스나 文化가 進展한 나라에서는 하개의 敎育的材料로서 家庭에까지 浸透되고잇습니다. 그럼으로 今番에 本社에서는 市內에게신 讀者여러분께 이娛樂의 씨—즌을 다서 가장 愉快한선물을 하나드리기로하엿습니다. 그것은 다른것이아니라 지금 市內仁寺洞 朝鮮劇場에서 獨占封切을하여서 滿都의 映畫팬들에게 嘖嘖한 好評을밧고잇는 『마스코—』會社의 猛獸映畫『激浪』 一篇을 오는 二十四、五、兩日間에 讀者慰安으로 드리게 되여잇는것입니다.

우리가 猛獸映畫라면 의례히 『따—상』을생각하나 이것은 벌서 時代에 뒤떠러진 興行입니다 이어도 百萬頭以上의 猛獸를 總動員식혀 하늘을 찌를듯한 大密林 속에서 서로 殺戮하는 人間과 猛獸와의 展開되는 이映畫야말로 人類歷史의 가장 上古時代를 想像하기에 足할만한 痛快와 戰慄과 感激의 場面이라고 아니할수업슬것입니다. 본보의 애독자는 누구나 다 이機會에 이痛快한하로밤을 가저보십시오. 優待券은 欄外에잇스며 入場料는 階上이 大人五十錢 小人 三十錢인것을 大人三十錢 小人 二十錢으로 階下는 大人三十錢 小人 二十錢을 大人二十錢 小人十錢으로 割引해드립니다.

朝鮮日報讀者優待券
九月二十四五兩日 朝鮮劇場에서 『로스트•정글』上映中 一人에 一枚限
優待料金 『上』附 大人五十錢을三十錢 小人三十을 二十錢 『下』附 大人三十錢을二十錢 小人二十錢을十錢

野談 三韓의임금

한번치성드려

申鼎言

리시중(侍中)…(太祖)께서일즉 칠성신(七星神)에게 치성을 들리신일이잇섯다 이것은 지금 려항에서 칠성을 위하는것과 가튼 의미가 아니오 만물이 창조된것을 감사하는 이는 천제(天祭)이엿다. 어느날 리시중되서역시 친제를 올니려할때 어느 로인이 그근처에잇는 큰 고목(枯木)아래에서 하로밤을 지내게되엿다 밤은 이미 깁허 만뢰(萬籟)가 고요한 때이엿다.

홀연 나무속으로 부터 이상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듯하더니 그 소리가 점점 키지며 『여보게!』 『여보게!』 하고 누구를 키달아케 부르매 『왜 그러나?』 하고 건너편에 잇는 큰 나무 속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또한 분명하게 들렷다. 로인은 두 나무 사이에서 이 괴상스러운 소리를 듯고서는 어찌할줄을 모르고 맛치 게자를 먹은뒤에 코김을 내풀듯이 『후—우!』 하는 외마듸 숨만 간간 내쉬엿다. 그리고 로인은 두 나무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나 듯기에 소름이 끼처서 적은 벼주둥이에 큰 벼마개를 집어넛투이 두손가락으로 귀구멍을 틀어막고 새우와가티 웅송구리고 업드렷다.

그런데 저편나무속에서 대답이잇자 이편나무에서 하는말이 『다름아니라 지금 리시중이칠성신께 치성을 드린다하야나도가서 한주엽을 할러인데자네동행아니하려나?』 하는 소리가 너머나 명랑하야 그 로인의 틀어막은 귀속으로 여전히 똑똑하게 들엿다 지편 나무속으로 부터 또한소리가 울려 나오되 『허! 섭섭한 일일세 나는방금 손님이 오서서 동행할수가 업스니 혼저 가서 잘사시고 남저지는 싸다가 나에게 선사나하여 주게!』 하는 소리가 또한 렁렁히 들여 온다. 『그러면 단여옴세!』 하는 소리가 이편나무에서 또나오며 뒤밋처 찬 긔운이 나무속으로부터 공중을 향하야빠치여 나아간다. 로인은 이 괴이한 광경을당하는 중에도 그 괴이한 일을 쏫까지 보려고 여전이 업듸여잇섯다. 그런데 얼마아니잇다가 전과 가튼 찬긔운이 공중으로부터 나무속으로 빠처 오더니 『여보게!』 『여보게!』 또한부르는 이편나무의 소리를 응하야 저편나무속에서 대답하매 『오날저녁 리시중의 치성에 일꿉분성인(衆人)이 다참례는하얏스나 치성이 정치못한 까닭에 여러분이 노하야 돌아가심으로 나여시 그대로 돌아와네』 하며 한바탕 긴 이야기를 한뒤에는 다시 더말와업섯다. 로인이 이러케 송구한 중에서그렴저렴 밤을 새우고서 먼동이 틀락 말락 한때에 바로 리시중내에 이르러 리시중을 배오려하얏다. 그러나 『주공(主公)께지 방금 치성의 재계를 하시는 중이라 뵈올수가업소』 하며 하인들은 문에 들이지도 아니하얏다. 『내가 뵈오려 오것도 역시 치성에 대한 일인데 오늘을 그대로 넘기면 큰 화가 밋출는지도 모르겟스니 꼭 뵈압겟다』 하며 간청하얏다. 아말을 들은 하인들도 매우 이상스럽게 생각하야 그 뜻을 리시중께 엿주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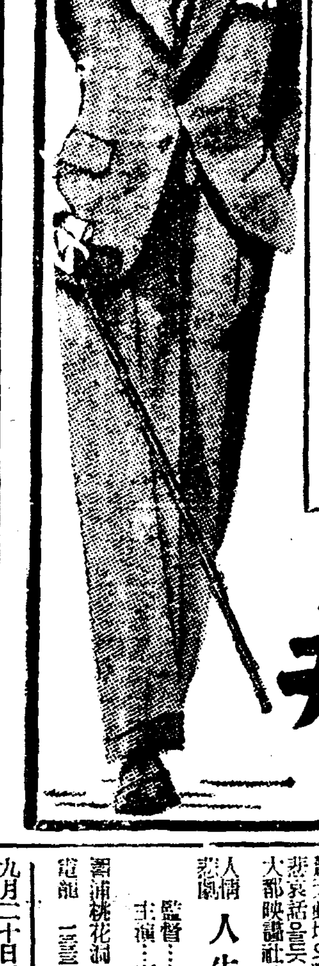
리시중께서도 역시 이상이 생각하사 곳 그 로인을 불너들이엿다. 그 로인은 들어가 인사를하는듯 마는듯하고 펴이나 급한태도로서 『밤음 치성을 들이시는 일이 게십니까?』 『응! 그런일이 잇지』 『그런데 불결한 일은 업스십니까?』 『결코 그럴리가 만무하지』 『아니 내가 중험한일이 잇스니숨기지 마십시요』 『과면 조심못된 일니 잇기는 잇섯서!』 하고 리시중께서는 사실을 바로 설하섯다. 그 로인는 그제야 지난일을 서서히 설명하고서 치성을기를 말하얏다. 리시중께서도 로인의 말을 드르신뒤에는 크게 놀내시어 그 즉시로 부터 곳 목욕재계를시작하야 열흘이자난뒤에 다시치성을 드릴새 밤이 처신 집흔뒤에 과연나무속으로서 『여보게! 여보게!』 부르는 소리를 응하야 건너편 나무속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나며 『오늘저녁에 리시중이 또다시 목욕재계를 열흘동안이나 지성것하고 치성을 들인다하니 가지아니하려나?』 『오늘도 손님이 오서서 가지 못하겟네』 『그러면 나 단여오지』 하드니 찬긔운이 나무속으로서 공중에 빼처 나간다. 그런뒤 한참지나서 그 찬기운이 공중으로부터 다시나무에 쏘이치며 건너편 나무를향하야 『여보게! 이번의 치성은 매우 정결하야 여러별님이 모두조와하섯네. 그리고 칠재별님이 말슴하기를 리시중의 치성이 이러케 정성스러우니 그것을 갑하야 아니할가하며 다른 여섯별님이 모두 찬성하며 무엇으로 갑호려하오하니 첫변님이 말하기를 삼한땅(三韓地)으로 상을 주는것이 어떠할가한즉、여섯별님들이 모두 무방하지하섯네』 하는 지난 이야기를 사서히하니 건너편 나무속에서 『잘되엿네!』 하는 대답이잇슨뒤에 다시는서로 아무런 소리가 업섯다. 그사람이 무섭고도 괴이한생각을 가슴에 품고 빨니 다름질노 돌아와 그 들은바를 자세히 리시중께 엿주엇다. 리시중께서는 (놀라하시고) 먼저듯고온 로인을 후이 대접하섯다. 대저 이것이 무엇일가? 원래 첨년묵은 동갑이로서 칠성의 명을 바더 그 나무를 직히는 목신(木神)인데 리시중이 한천긔(天機)를 루설하얏다 한다 (參考五山說林)

藥 御問屋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營業案內呈進
電話本局 四〇九・一〇六八 九〇四・三四四八 振替京城一一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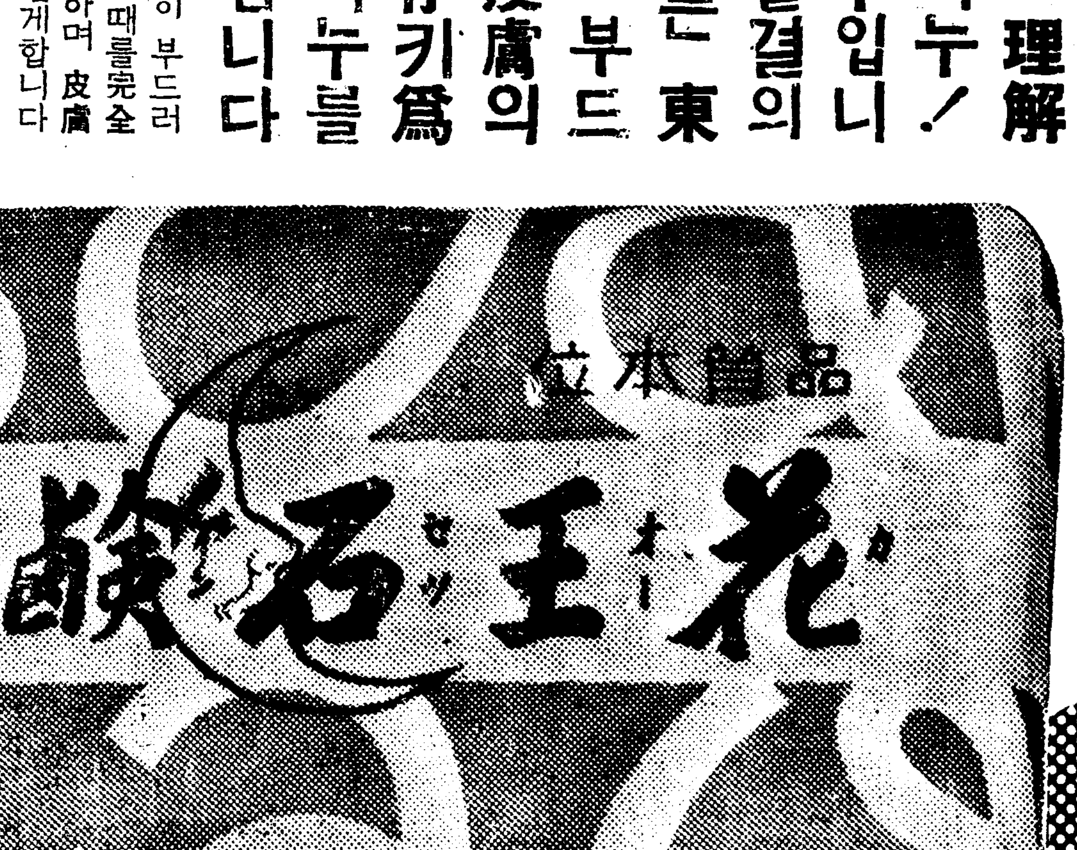
痔疾 치질藥으로는 오세로
全國有名藥店에잇슴 ¥0.31 ¥0.50

頭痛이잘낫는名藥
ノーシン 노—신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늘로 쑤시는것가티 골치가 아플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트래도 過度한讀書로 睡眠이 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호릿터분할때나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잡수시는名藥입니다 마일頭痛으로 辱을보는때가게시건든이지마시고 노—신을꼭 한봉만잡수어보십시오 언제머리를 아랏는가? 하는늣김을 가질뿐아니라 아조머리가 明快해집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듯는것이 노—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떨어치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시는분이게시거든 꼭이 노—신을服用하도록 가르처줍시다 노—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處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노—신과 비슷한 藥品이만히나와사오니 잘못하면속히기쉽습니다 사실때 登錄商標帽子印잇는 ノーシン에 잘注意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三中井創設!! 玆에廿五週年……爾來諸賢의絶對한愛顧에依하야 謝恩의至誠에불타면서……洋服部의特別大奉仕
九月二十日부터 九月三十日까지
가을부터 겨울까지 紳士服의記念大特賣
자질이豐富한三中井의 既成服
品柄 價 裁斷 四拍子完備한 大特價!!
揃三廣背 15円 20円 25円
京城 三中井 四階洋服部



品質本位
花王石鹸 (화왕비누)
全東洋的石鹸!
四十八年間! 美와健康에 奉仕하야서 참으로 東洋人의 皮膚를 理解한 純良無比의 비누! 그것이 花王 비누입니다! 比할데업는살결의 고흔것을 자랑하는 東洋의婦人들은 그 부드럽고 밋그럽은 皮膚의 젊고 젊음을 保存키爲하야반다시花王비누를 쓰시지안트면안됩니다
花王비누의 優秀한作用은 如何히 부드러운 살결이라도 거칠지안케하고 때를完全히 씨서바리게하야서 깨긋하게하며 皮膚를整然하게하고 生生하고미그럽게합니다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鹸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九月二十一日낫부터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聖祝祭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밤七時半始映
메트로골드윈메야—社超特作日本版
戰爭悲活劇 今日에限한生命 全十一卷
監督…하와드혹스氏 主演…케리쿠바氏 죠안크로드孃
歐洲大戰에아버지를祭物로바친다이아나에사랑하는포카드는爆擊手로自己는사랑을따라看護婦로敵의魔陣는不幸이도포카드의戰友구로—드는失明식혓다는急報를接한포카드는戰友를위하야爆擊機의操縱!! 驚天動地의戰爭!! 戰友의가삼벅찬悲哀話를듯고보시라!
大都映畫社特作品
人情悲劇 人生의岐路 全八卷
監督…吉村操氏 主演…琴絲路孃
西浦桃花洞 電話一三三 桃花劇場

九月二十日낫부터三大巨篇 同時封切週間
每日三回 正午十二時 午後三時半 午後七時半
마숑코드社三五年度超大作 全發聲日本版
猛獸구리이드비—지—主演
ロストジャングル
다—상以上의叢林大秘境戰慄의巨擘劃期的地上唯一의奇怪千萬의人間과猛獸를總動員식킨問題의大映畫!! 悽慘無比는在來의猛獸映畫
展上의新記錄冒險篇
골럼비아社二大特別超努級篇 日本版
우읍다—락구監督 우읍다—고노리主演 激浪 英雄天下의橫行篇
루이스—깅구監督 第一番位西部大活劇 猛見밧구존—스主演
沙漠의復讐
仁寺洞 電光三六一 朝鮮劇場